

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9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6. 14.

발 의 자 : 이병진·이재관·이연희
송옥주·박주민·임호선
주철현·복기왕·윤후덕
이원택·권철승·강유정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조참여자가 조난사고에 대한 예방·대응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고, 구조업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·사망한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구조업무에 사용한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등 물질적 손실 발생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하여, 민간에 의한 적극적인 구조활동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5조에서는 재난의 응급대책·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에 구조업무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 등의 장비가 해상구조 업무, 교육·훈련 등 조난사고 예방·대응 활동 등과 관련하여

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수리비용과 어민이 입게 되는 조업손실 등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난사고 시 구조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0조제8항 신설).

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⑧ 구조업무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 등의 장비가 해상 구조 업무와 교육·훈련 등 조난사고 예방·대응 활동 등과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수리비용과 어민이 입게 되는 조업손실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 등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처 우) ① ~ ⑦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30조(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처 우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<u>⑧ 구조업무에 참여한 민간해 양구조대원과 어민 등의 장비 가 해상구조 업무와 교육·훈 련 등 조난사고 예방·대응 활 동 등과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수리비용과 어민 이 입게 되는 조업손실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 등에게 수리비용을 보상 할 수 있다.</u>